



2026. 10. 23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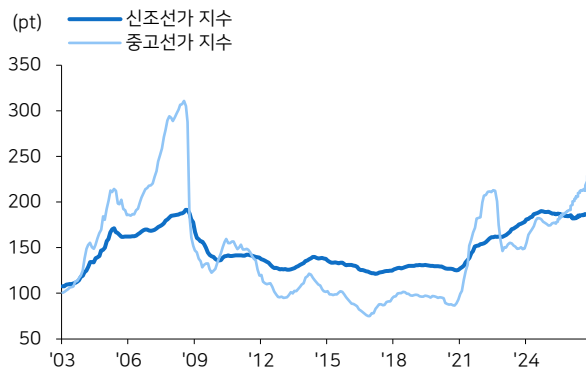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7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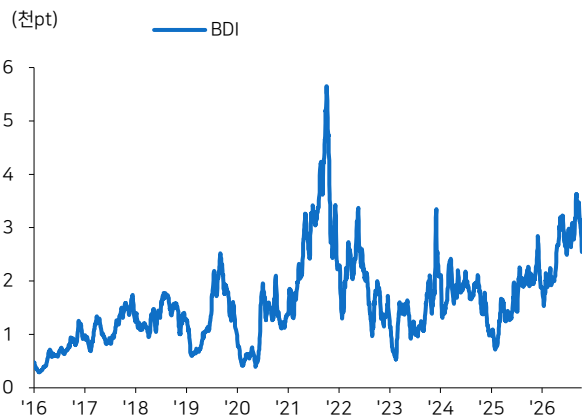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2.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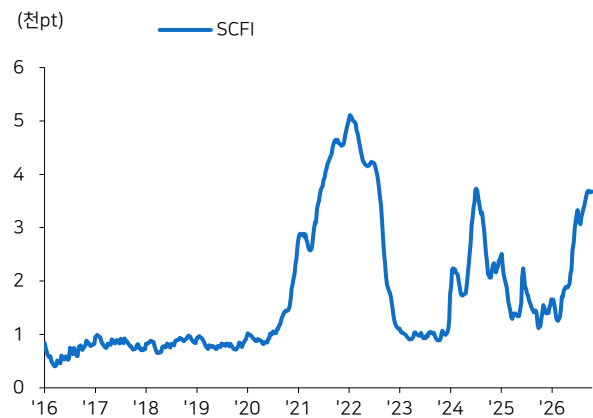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680.0p (+8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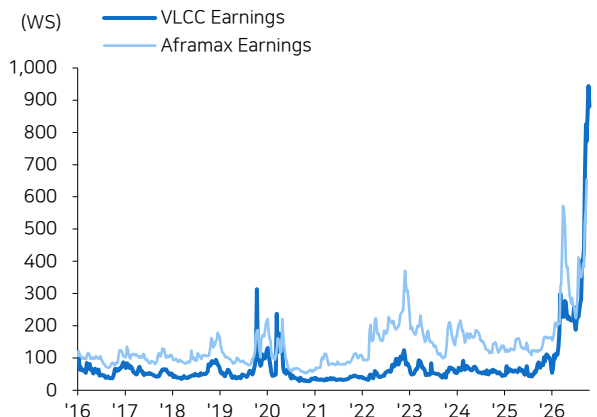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679.6 (+15.5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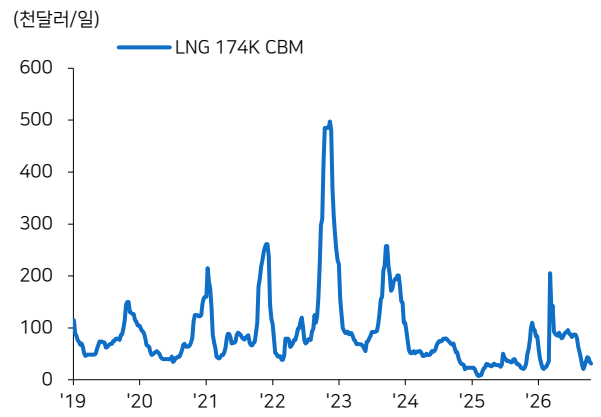
VLCC Spot Rate

880.8WS (-63.4 WoW)



LNG Spot 운임

31.0천달러 (-3.3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현대, 美서 블록공장 설립...조선소 건설도 추진 (한국경제)

<https://zrr.kr/tApCg5>

HD현대가 미국 대형 EPC 기업 키윅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해 현지 부지를 매입하고 선박용 블록·대형 철골 구조물 생산 거점을 신규 구축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생산된 블록은 헌팅턴 잉걸스(HII) 등 미국 방산 조선소에 공급해 현지 건조 및 방산 조달 기준을 충족하고, 향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 규모를 최대 조 단위로 확대해 조선소 건설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이번 투자는 존스법과 미국의 현지 생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HD현대가 조성을 추진 중인 50억달러 규모 투자펀드와 연계해 마스가(MASGA) 첫 프로젝트로 선정될지 주목된다고 전해짐.

Cheniere inks LNG delivery deal with QatarEnergy (Upstream)

<https://zrr.kr/s4AkUC>

미국 LNG 수출업체 Cheniere가 QatarEnergy와 2031년부터 2054년까지 연간 400만 톤의 LNG를 공급하는 장기 매매계약(SPA) 2건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공급 물량은 Sabine Pass와 Corpus Christi 터미널에서 각각 연간 200만 톤씩 조달하며, 이 중 100만 톤은 Sabine Pass 증설 프로젝트의 최종투자결정(FID)을 조건으로 한다고 알려짐. QatarEnergy는 2026년 미국·이란 전쟁 중 자국 LNG 시설이 공격받은 이후 글로벌 LNG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공급 안정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고객 대응 및 LNG 트레이딩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We can't just switch overnight': IMO chief makes case for LNG (TradeWinds)

<https://zrr.kr/1m1lbH>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이 개정 넷제로 프레임워크에서 LNG를 전환기 선박 연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기존 인프라 투자와 메탄 슬립을 줄인 엔진 기술의 발전을 규제 논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도됨. IMO 회원국들은 연료의 전 과정 온실가스 배출 기준과 경제적 부담금 제도를 결합한 절충안을 논의 중이며,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기금 조성 규모보다 해운 탈탄소화 촉진이 제도의 핵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알려짐. 회원국들은 11월 기술 협상과 12월 회의를 통해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나, 채택 지연으로 규제 시행 일정도 늦춰질 수 있으며, IMO는 장기 탈탄소화 수단으로 원자력 추진 기술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짐.

그리스 '선박왕'의 1 조원 조달... 한화오션 VLCC 잔금 납입 닷 올렸다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t6GDN5>

그리스 선사 캐피탈 탱커스가 초대형 원유운반선 11척 건조를 위해 총 9억3,030만달러(약 1조2,347억원) 규모의 선박 금융 계약 4건을 체결했으며, 이 중 한화오션 건조 VLCC 3척에 2억4,180만달러(약 3,209억원)가 배정됐다고 보도됨. 한화오션 건조 선박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LNG 이중연료 추진 전환 준비를 갖춘 32만DWT급으로, 2027년 인도 예정이며 선주의 금융 조달 확정으로 인도 시점 잔금 수취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알려짐. 다만 중국 조선소 2곳이 나머지 8척의 건조 금융을 확보하고 장기 분할상환 조건을 제공하면서 대형 유조선 시장에서 중국 조선업계의 금융 경쟁력이 변수로 부상했으며, 캐피탈 탱커스가 추가 원유운반선 13척의 발주 옵션을 보유해 향후 한화오션의 추가 수주 여부가 주목된다고 전해짐.

친환경 선박 시장 판 키운다...HD 현대重, 세계 최대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 (한경비즈니스)

<https://zrr.kr/WKKz4z>

HD현대중공업이 싱가포르 선사 EPS로부터 2023년 수주한 93,000㎥급 초대형 암모니아 추진선 2척 중 첫 번째 선박 '테라 클로브호'의 명명식을 개최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암모니아 추진선으로 11월 초 인도 예정이라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시스템과 자체 기술로 설계·제작한 화물창 4기를 탑재해 암모니아·LPG를 최대 93,000㎥까지 운송할 수 있으며, 암모니아 누출 감지 및 배출 저감 기술로 안전성을 강화했다고 알려짐.

한화 필리조선소 건조 심해 암석 설치선, 美 올해의 10대 선박 선정 (더구루)

<https://zrr.kr/x5Ahy9>

한화 필리조선소가 건조한 미국 국적 최초의 심해 암석 설치선(SRIV) '아카디아'호가 미국 조선 전문 매체 워크보트의 '2026년 주목할 만한 선박 10척'에 선정됐으며, 한미 조선 협력과 미국 해상풍력 공급망 기여도를 인정받았다고 보도됨. 아카디아호는 길이 140m로 암석 2만 톤을 적재해 수심 65m까지 정밀 시공이 가능하며, 한화오션 인수 이후 한국식 조선 공정을 적용해 건조 기간을 단축하고 지난 6월 미국 해양 인프라 기업 GLDD에 인도됐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엠파이어 윈드 1과 선라이즈 윈드 등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며, 한화 필리조선소는 지난 8월 다목적 훈련함 5척 중 네 번째 선박도 인도하는 등 현지 건조 역량과 생산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해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